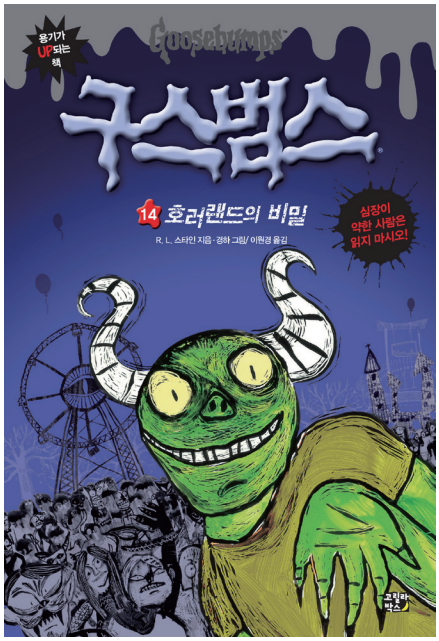
전 세계 4억 2천만의 선택
구스범스 14권 출간!

구스범스® 시리즈



14 호러랜드의 비밀 R. L. 스타인 지음 • 경하 그림/ 이원경 옮김

* 2015.7.30. 발행/ 140x205/ 무선제책/ 8,500원/ ISBN 978-89-6548-178-2 74840

고릴라박스

비룡소의 색다른 상상력 브랜드

세상에서 가장 섬뜩한 놀이공원이 찾아온다!

** 미국국립교육협회 어린이 선정도서

** 니켈로데온 키즈 초이스 어워드(Nickelodeon Kids' Choice Awards)

32개국 4억 2천만 어린이가 선택한 세계적 베스트셀러 '구스범스' 시리즈 열네 번째 책이 출간되었다. 구스범스 14권은 '호러랜드'라는 무시무시한 놀이공원으로 독자들을 안내한다. 놀이공원 하면 스릴 만점 놀이 기구에 눈이 휘휘 돌아갈 만큼 화려한 꾸밈으로 가득 찬 환상의 공간을 떠올리기 마련이다. 그런데 호러랜드는 이런 놀이공원의 이미지를 산산이 부서뜨린다.

인적이 없는 빽빽한 숲 속 깊은 곳에 자리한 호러랜드. 귀를 괴롭히는 오싹한 오르간 소리, 괴상하고 음침한 건물들, 섬뜩한 경고문이 적힌 곳곳의 팻말, '안전 밧줄 없는 번지 점프' '단두대 박물관' 등 끔찍한 이름의 놀이 기구들까지, 놀이공원이라고 하기엔 뭔가 수상쩍다. 손님이라곤 거의 찾아볼 수도 없거니와, 가끔 마주치는 아이들은 왠지 모르게 죄다 울고 있다. 직원이라는 호러들은 툭 튀어나온 노란 눈에 뿔을 단 초록 괴물 분장을 하고, 사람 머리통을 요요처럼 흔들며 지나가질 않나, 시커먼 아이스크림을 팔질 않나, 음습한 분위기를 폴폴 풍긴다.

호러랜드에 꼼짝없이 발이 묶인 리지 가족은 이런 괴상한 곳에서 과연 어떤 사건을 맞닥뜨리게 될까? 상상을 초월하는 섬뜩한 공포로 가득 찬 호러랜드에 여러분을 초대한다!

"출구 없음. 어느 누구도 살아서 호러랜드를 나가지 못한다!" 흥분과 공포, 진실과 거짓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길을 잃고 우연히 '호러랜드'에 도착한 리지 가족. 차에서 내리자마자 자동차가 갑자기 폭발해 산산조각 난다. 더욱 어이없는 건 자신을 '호러'라고 소개한 직원이 차 문제는 걱정 말고 호러랜드를 마음껏 즐기라고 했다는 것이다. 부모님은 호러의 말을 의심쩍어 하며 문제를 해결하러 떠나고 아이 셋만 덩그러니 남겨진다.

리지와 루크, 클레이는 찜찜한 기분이지만 이 요상한 놀이공원을 즐겨 보기로 한다. 처음에는 스릴을 만끽할 생각에 짜릿했지만, 곧 기대는 깡그리 무너진다. '죽음의 슬라이드'는 불길을 뚫고 한없이 어둠의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거울의 방'은 사방 벽으로 밀며 아이들을 찌부러뜨리려 한다. '박쥐의 집'에서는 꼼짝없이 갇혀 박쥐들에게 온몸을 물어 뜯긴다. 그리고 어서 달아나라는 초록 괴물 호러의 섬뜩한 경고!

'그냥 재미로 겁주는 거야.' 되뇌며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던 리지는 이제 극도의 공포감에 몸서리친다. 이 끔찍한 곳에서 빠져나가려고 하지만 호러랜드는 도무지 놔 주지 않는다.

도대체 호러랜드의 정체는 무엇일까? 누군가의 짓궂은 장난일까? 아니면 진짜 사람을 해치려는 걸까? 또 이곳에 리지 가족을 꼼짝 못하게 한 자는 누구일까? 수상쩍어 보였던 호러일까? 아니면 또 다른 괴물일까?

이 책은 이런 궁금증을 풍기며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한다. 그 비밀이 하나씩 밝혀지면서 강력한 카

타르시스를 안기기까지, 호러랜드를 기꺼이 즐겨 보자!

● 전문가 추천사

어린이가 느낄 수 있는 부정적 정서를 다루어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책!

어린이는 발달과정에서 걱정, 불안, 공포 등 부정적 정서를 자연스럽게 경험합니다. 이때 어린이가 생활에서 느끼는 심리적 어려움에 크게 흔들리지 않으려면, 부정적 정서들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하지요. 또 때로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린이가 이러한 부정적 정서를 이야기를 통해 미리 다루어 볼 수 있다면, 내면의 자질을 기르고 자아를 발달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스범스」 시리즈는 어린이가 느낄 수 있는 낯선 것에 대한 스트레스, 분리 불안, 형제자매나 친구 사이의 경쟁 등을 어린이의 시각에서 흥미롭게 다루어 어린이가 자기 내면의 감정을 돌아볼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주인공이 불안과 스트레스를 이겨 내고 결국 문제를 잘 해결하는 모습은 어린이에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알려 줍니다. – 권윤정(아동 · 청소년 심리상담 전문가, 이음세움 심리상담센터)

● 〔시리즈 소개〕 구스범스 시리즈

전 세계 32개국, 4억 2천만 어린이가 읽은 초대형 베스트셀러.

구스범스 01. 목각 인형의 웃음소리 소윤경 그림 · 노은정 옮김
걸걸하고 기분 나쁜 목소리, 뚫어질 듯 쳐다보는 눈빛, 방 안을 돌아다니는 시커먼 그림자. 과연 인형의 정체는?

구스범스 02. 가면의 복수 오윤화 그림 · 고정아 옮김
친구들로부터 늘 겁쟁이라고 놀림 받는 칼리. 핼러윈 날 끔찍하고 무서운 가면을 쓰고 친구들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하는데…….

구스범스 03. 빈집의 숨바꼭질 조원희 그림 · 노은정 옮김
아만다는 자꾸만 집 안에서 어린아이의 발소리와 웃음소리를 듣는다. 누군가 이 집에 살고 있는 걸까?

구스범스 04. 여름 캠프의 악몽 조승연 그림 · 고정아 옮김
여름 방학을 맞은 빌리는 캠프장으로 가는 버스에 올라탄다. 무성한 숲 한가운데 캠프장. 친구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하는데…….

구스범스 05. 악령을 부르는 머리 허구 그림 · 고정아 옮김
과학자 베라 이모가 보낸 괴기스러운 머리와 정글로 오라는 초대장. 무시무시한 정글에서 악령을 부르는 머리가 빛나기 시작한다.

구스범스 06. 미라의 저주 홍정선 그림 · 노은정 옮김
신날 줄만 알았던 피라미드 탐험. 하지만 삽시간에 공포의 탐험으로 바뀌고 만다.

구스범스 07. 늑대인간의 울음소리 허구 그림 · 고정아 옮김
하나씩 늘어나는 동물의 시체, 갑자기 나타난 늑대를 닮은 개, 그리고 짐승을 닮은 숲 속 남자. 과연 늑대인간은 누굴까?

구스범스 08. 저주 받은 학예회 나오미양 그림 · 노은정 옮김
70년 전 주인공이 사라져 버린 연극. 그 저주 받은 공연이 다시 시작된다.

구스범스 09. 악마의 통조림 이영림 그림 · 이원경 옮김
장난감 가게에서 발견한 통조림. 그 속에 든 것이 내 방을 통째로 집어삼키기 시작하는데…….

구스범스 10. 눈사람을 조심해 이경국 그림 · 이원경 옮김
눈 덮인 산에 절대 올라가선 안 된다는 사람들. 도대체 뭐가 있기에…….

구스범스 11. 찰칵! 금지된 카메라 김상인 그림 이원경 옮김
낡은 저택 지하실에서 카메라를 발견한 그레그. 이 카메라에 무슨 저주가 걸려 있는 걸까?

구스범스 12. 싱크대 밑의 눈 정지혜 그림 이원경 옮김
어두컴컴한 싱크대 밑, 무언가 살아 있다! 새까만 두 눈, 고동치는 심장, 소름끼치는 웃음소리……. 놈은 대체 뭘까?

구스범스 13. 투명인간의 저주 임경섭 그림 이혜인 옮김
정체를 알 수 없는 목소리, 초자연적인 사건이 계속된다.

구스범스 14. 호러랜드의 비밀 경하 그림 이원경 옮김
숨통을 조이는 놀이 기구. 멈춰, 제발 멈추라고!

* 구스범스 시리즈는 계속 출간됩니다.

● 작가 소개

지은이 R. L. 스타인

"제 직업은 어린이에게 오싹함을 선물하는 것이죠!"

전 세계 아이들의 열광적인 사랑을 받는 어린이책 작가. 밖에 나가 노는 걸 싫어했던 스타인은 9살 무렵 타자기를 가지고 놀면서 이야기를 짓기 시작하여 재미있는 유머책을 써 냈다. 어른이 된 뒤 어린이를 위한 유머책과 잡지를 만들고 출판사를 운영했던 스타인은, 공포소설 「공포의 거리」시리즈를 쓰면서 작가로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1992년 「구스범스」시리즈가 출간되면서 스타인은 전 세계 32개국에 널리 알려진 스타 작가가 되었다. 「구스범스」시리즈는 지난 30여 년 동안 100권이 넘게 출간되었고, 미국에서 TV 시리즈로 제작돼 3년 동안 방송되었다. 「구스범스」시리즈는 2001년과 2003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어린이책으로 기네스북에 올랐으며, 현재는 「해리 포터」시리즈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어린이책으로 꼽힌다.

그린이 경하

한양대학교에서 실내환경디자인을 전공했고 지금은 그림을 그리는 즐거움에 푹 빠져 있다. 그린 책으로는 『힘내라! 힘찬 왕자』, 『할머니는 왕 스피커』, 『이빨 뺀 날』, 『일기 몬스터』 등이 있다.

옮긴이 이원경

경희대학교에서 국어국문학을 공부하고 지금은 전문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는 『말 안

하기 게임』, 『쌍둥이 바꿔치기 대작전』, 『황금 열쇠의 비밀』, 『행복한 목수 비버 아저씨』 등이 있다.

편집 담당 김솔미(내선 364), 라유경(309)
홍보 담당 황수연(내선 310)
마케팅 담당 박병국(내선 237)